

## 유리건판 사진

김영민, 120호 대한제국실 18:00~18:30

유리건판은 1871년 영국인 매독스(Richard Leach Maddox, 1816~1902)가 브롬화 은 젤라틴유제를 유리판에 도포한 건판을 발표함으로써 탄생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흑백사진필름의 원형으로, 유리원판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건판은 종래의 콜로디온 습판(濕板)에 비해서 화상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보존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감도와 편의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노출시간이 몇 분의 1초로 단축되어 순간촬영도 가능하였습니다.

초기 유리건판 제조는 소규모의 수공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업생산물로서 본격적인 제조가 이루어진 것은 20세기 초입니다. 이후 유리건판 크기를 규격화하여 표준판인 소판( $4\frac{3}{4}" \times 6\frac{1}{2}"$ )과 중판( $6\frac{1}{2}" \times 8\frac{1}{2}"$ ), 대판( $10" \times 12"$ ) 등 다양하게 생산 및 사용하였습니다. 1930년대로 들어서 독일 정밀기계공업의 산물인 라이카와 콘탁스 등 롤필름을 사용하는 소형카메라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어 유리건판의 일반적인 수요는 점차 감소되었습니다.

유리건판의 사진에는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은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 인류학, 민속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리건판에는 일제강점기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큼니다. 일제와 광복 이후 사회적, 문화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우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하고 놓쳐버린 구체적인 역사의 단편들을 유리건판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38,000여 장의 방대한 수량의 유리건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당시의 고적, 유물, 인물, 풍속 등을 망라하여 사진으로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가 식민 지배를 위해 남긴 고도의 문화정책적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규모의 자료는 오히려 역사자료가 부족한 우리 근대시기를 재조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1. 유리건판

## 특별전<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12)

정현,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아스테카’는 마야와 잉카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 3대 문명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아스테카는 우리에게 꽤 낯섭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 대신, 전쟁과 인신공양의 잔혹한 이미지와 스페인 정복자를 자신의 신으로 오해한 멸망 이야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소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으며 견고한 통치체제 위에서 번영하였습니다. 활발한 정복 활동과 공물 시스템은 메소아메리카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였으며, 예술과 지식의 발전도 상당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아스테카를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아스테카의 역사와 문화의 실제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최근 연구와 발굴 조사 결과, 아스테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메리카 대륙 침략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종교를 강요하였던 유럽 정복자의 과장과 왜곡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시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잔혹함으로 치부하였던 그들의 희생제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스테카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시스템은 그들의 독특하고 복잡한 세계관과 우주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스테카 사람들은 신들의 희생으로 태양과 세상이 탄생하고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여겼으며, 인간 역시 이러한 신들 덕분에 존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전시에서는 먼저 아스테카 사회를 지배하였던 그들의 세계관을 소개한 뒤 자연, 경제, 전쟁, 정치, 예술, 지식, 제의 순으로 아스테카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봅니다. 이번 전시가 그동안 역사와 신화가 혼재하고 과장과 왜곡으로 가려졌던 아스테카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1. 지하세계의 신  
믹틀란테쿠틀리



그림2. 비와 풍요의 신  
찰치우틀리쿠에 화로



그림3. 비의 신  
틀랄록을 그린 항아리



그림4. 바람의 신  
에에카틀

## 목간의 출토에서 보존까지

양석진, 109호 신라실 19:00~19:30

목제유물은 대부분 수침 상태로 출토되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존처리를 실시하지 않으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되어 유물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특히 목간의 경우 목재의 보존과 더불어 목서 보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목간은 일반적으로 목제유물을 보존처리 하는 방법과 동일하지만, 특히 육안으로 목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면의 색을 밝게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목간은 많은 목제유물 보존처리 방법 중 *t*-Butanol을 용매로 하고, PEG를 강화제로 사용하여 동결건조 하는 방법으로 보존처리 합니다. 이는 목재의 색을 밝게 하여 목서를 육안으로도 용이하게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공동결건조법은 인스턴트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제조에도 폭넓게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수용액 또는 수분을 함유한 물질을 급속냉각(Liquid→Solid)하여 동결시키고, 감압상태(Solid)에서 승화(Solid→Gas)시켜 물체를 건조시킵니다.(그림 1.) 함유된 수분을 예비동결한 후, 고진공 상태에서 승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유물 내부에 수분 확산을 방지하여 유물의 수축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수침목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용점 25℃의 유기용매제인 *t*-Butanol로 치환하여 동결 건조합니다. 이 방법은 물을 포함한 상태의 동결건조보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건조시간의 단축은 목재의 수축 변형에 영향을 주지 않아 과도한 변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 도중 목재의 수축 변형을 막기 위해 사전에 스며들게 하는 PEG#4000(PEG 분자량:4000)는 목재 조직의 보강제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t*-Butanol에 용해된 PEG#4000을 목재에 스며들게 하고 나서 진공동결 건조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에 비해서 건조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그 분자량은 PEG에 비해 훨씬 적으며 건조 후에는 PEG만이 목재 내부에 잔류해서 목재를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건조 후 색조도 밝습니다. 진공동결건조한 목재의 경우 함유수분의 절반정도가 PEG로 교체되어 있고, PEG는 목재 내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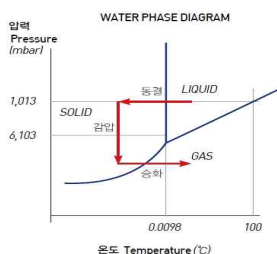


그림1. 동결건조 원리



그림2. 목간의 출토상태, 보존처리 전·후 상태



## 철불, 쇠를 부어 만든 부처

김영희, 301호 불교조각실 19:00~19:30

신라 하대 9세기경부터 고려 초 10세기 중엽까지 강원도, 충남·북, 전남·북 등 한반도 중부지역과 서남부 지역에서 철불이 널리 만들어졌습니다. 나말여초의 전환기에 신라 중심지였던 경주가 아닌 변방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까지 불상을 만드는 재료로는 흙, 나무, 돌, 청동, 금 등이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사에서 불상을 만드는 재료로 철을 사용한 것은 이 시기가 처음입니다. 철은 표면이 거칠고 녹는점이 동보다 높으며, 온도가 내려가면 금방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 표정과 손 모양, 옷주름 등 세부를 표현해야 하는 불상을 만들기엔 적합한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굳은 후에는 그 강도가 매우 단단하여 표면을 다듬는 후처리가 어려운 점도 까다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신라 하대부터 고려 전기의 장인들이 철을 불상의 재료로 선택한 데에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라 하대에는 불교 사원의 창건 금지, 사치 풍조 규제와 함께 중국 내의 혼란으로 무역이 어려워져 신라 내 동銅 수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918년 고려 건국 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어 동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철은 그 재료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동을 대체하여 불상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미 당唐(618~907) 시기부터 철불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말 당으로 유학을 떠난 승려들은 철불의 유행을 경험하고 귀국하였고, 이들이 도입한 새로운 불교인 선종禪宗과 함께 새로운 불상의 재료인 철도 거부감 없이 수용되었습니다.

오늘날 남아 있는 철불은 높이 1m 가량의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부터 2.8m에 달하는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 까지 다양한 크기입니다. 철불은 여러 조각의 거푸집을 이어 붙여 주조하였으므로, 판과 판의 이음새에 쇳물이 흘러 들어 생긴 분할선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림1. 철조여래좌상, 경기도 하남 하사창동 절터 출토, 고려 10세기, 높이 288cm, 보물, 덕수2748